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



정 상 훈

월간 『考試界』 발행인 · 대표

나라에 불행한 사건들로 점철된 2014년 갑오년을 뒤로 하고, 대망의 2015년 을미년의 아침이 밝았다.

며칠이 지나면 제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며, 3월에는 사법시험이 치러진다. 지금껏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한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올해도 3월 무렵이면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현재의 법조인양성시스템은 소위 투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인양성시스템은 2017년을 끝으로 로스쿨시스템을 통한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된다.

로스쿨제도가 시행된지도 7년이 흘렀고, 여러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고 기존의 사법시험 내지는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고 주장되고 있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네 분의 후보들조차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큰 이견이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외에 법조인이 되는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도에 5건이나 발의된 것도 모두 '돈 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 의원들의 발의 역시 사법시험 존치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회 균등의 법조인 선발제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로스쿨제도의 비판들은 로스쿨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2014년도의 경우 서울대학교 로스쿨 합격자 153명 중 SKY 대학 출신은 132명(86.2%)이고 학교별로는 서울대 100명(65.4%), 고려대 16명(10.5%), 연세대 16명(10.5%)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학은 KAIST 5명, 경찰대 3명, 포항공대 1명, 서강대 1명, 성균관대 1명, 중앙대 1명, 경희대 1명, 숙명여대 1명, 외국대학 7명이었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서울지역 소재 로스쿨의 입학자들 분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한 순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비만 하더라도 2000만원 내외가 된다. 이러한 액수는 학자금대출이라든가 기초수급자 등 생계곤란 장학금 등을 통해서 다소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금년 10월에 고시계사에서는 평생교육의 요람인 『법무경영교육원』을 개원하였다. 60여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자격시험과 직무교육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60여년간 창간 이래 애독자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 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당시의 창간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올 한 해는 부디 국가나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의 가슴속에만 간직해 둔 각자의 희망과 꿈이 현실적으로 영글어 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본다.